

경북행복 BRIEF

제30호 2019. 12. 1.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편찬부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14
홈 페이지 www.ghf.or.kr

- 1] 경상북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외 3명¹⁾ 1p
- 2] 경상북도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정상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11p

1] 경상북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며

- 송파 세 모녀 사건('14. 2월) 등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저하
※ 읍·면·동 담당 업무 갈때기화, 업무과중에 따라 종합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등의 어려움이 있음.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14~'15),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화 추진('1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 및 확대('17~) 등 전달체계를 개편함.
-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강조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는 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서비스(일명 '주인공'사업), ②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자치 활성화, ③ 행정기능 개선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사업 등(보도자료, 2017. 9. 26.²⁾), 읍·면·동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넓혀나가길 요구받고 있음.

1) 책임연구원 : 김동화(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박태영(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연모(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공동연구기관 : 전영호(사회보장정보원 사물관리정책지원센터 책임)

2) 보도자료 2017. 9. 26.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 : 행정안전부 '혁신 읍·면·동' 워크숍 개최.

- 공공전달체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등 ‘읍·면·동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 배치(가칭 돌봄 통합창구)’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역점 정책(예 : 찾아가는, 보건+복지, 주민력³⁾, 마을복지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주로 특정 지자체의 전달체계 모델에서 착안하여 전국화(예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광주 광산구 사업 등)로 도입된 것이 많음.
- 선도 지자체처럼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까지는 6년~10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의 과정이 요구됨.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민·관협력이 성숙되지 못한(기초단계) 읍·면·동에서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경상북도의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태(업무 추진의 어려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등)를 점검하고, 타 시·도 정책 지원 체계를 파악하여, 경상북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경상북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실태

1) 경북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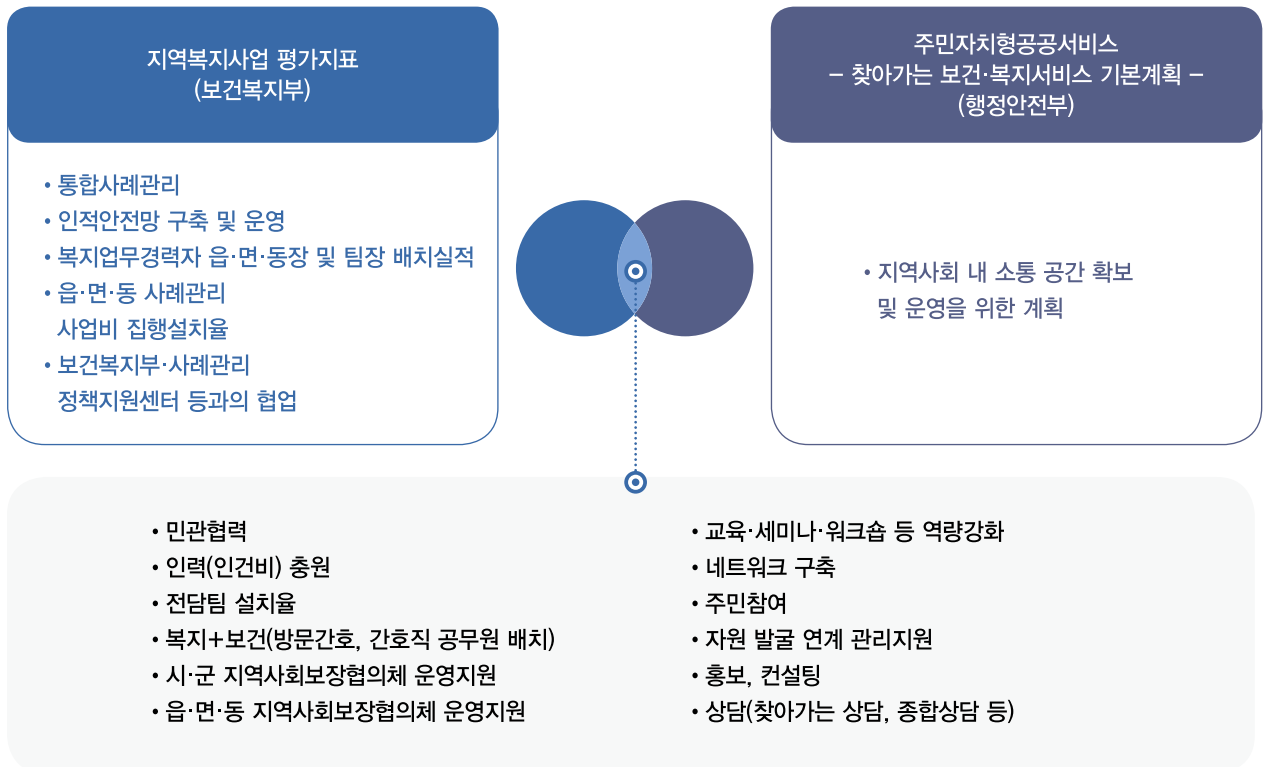
- 2018년 10월 기준으로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 수는 2,546개소(설치율 65%)이며, 서울이 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주(95%), 대구(91%), 경기와 인천(82%), 전북(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14위(44%)로 맞춤형복지팀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북은 ‘기본형’보다는 ‘권역형’ 설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내용 비교

-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표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비교 정리해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모두 민관협력, 인력(인건비) 총원, 시·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자원 발굴 연계 관리 지원, 홍보, 컨설팅, 상담(찾아가는 상담, 종합상담 등), 복지+보건(방문간호, 간호직 공무원 배치)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3) 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 등에서 민(民)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4)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 ‘지역복지사업’을 평가 및 포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지표를 가지고 평가



[그림 1]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내용 비교

3) 경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실태 양적조사 결과

■ 연구방법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기본형, 권역형(중심동) 16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425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함.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상담, 통합사례관리, 자원 개발, 민관협력, 특화사업 등의 업무 수행 어려움, 업무 수행의 어려운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5점 만점), 다중응답분석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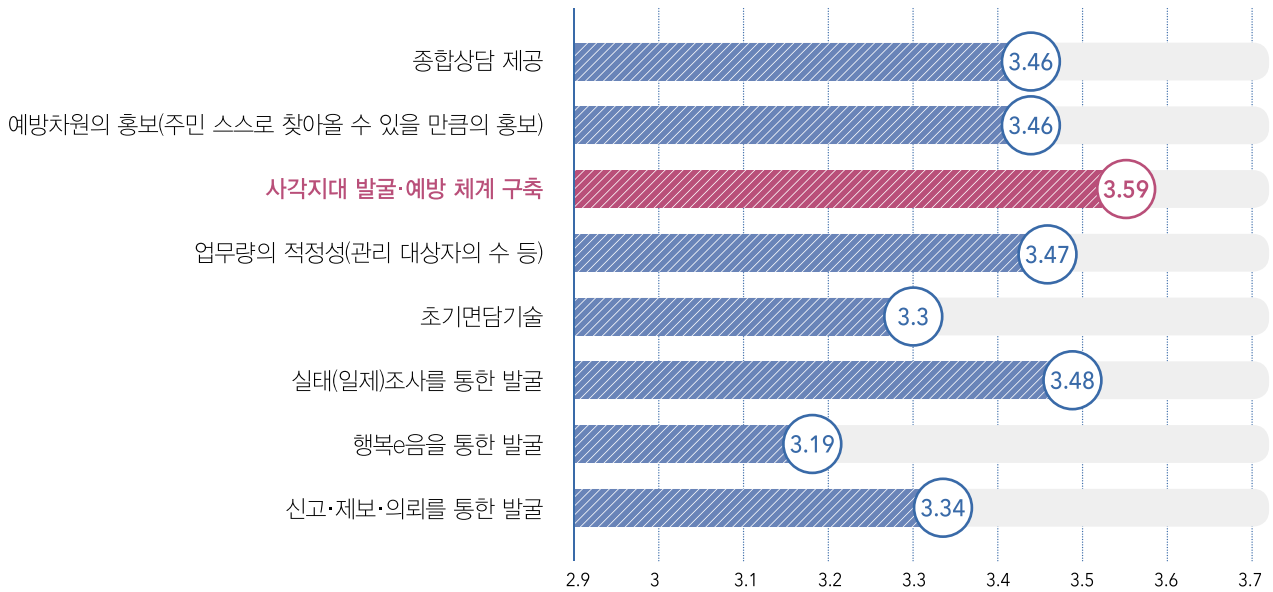
■ 조사결과

①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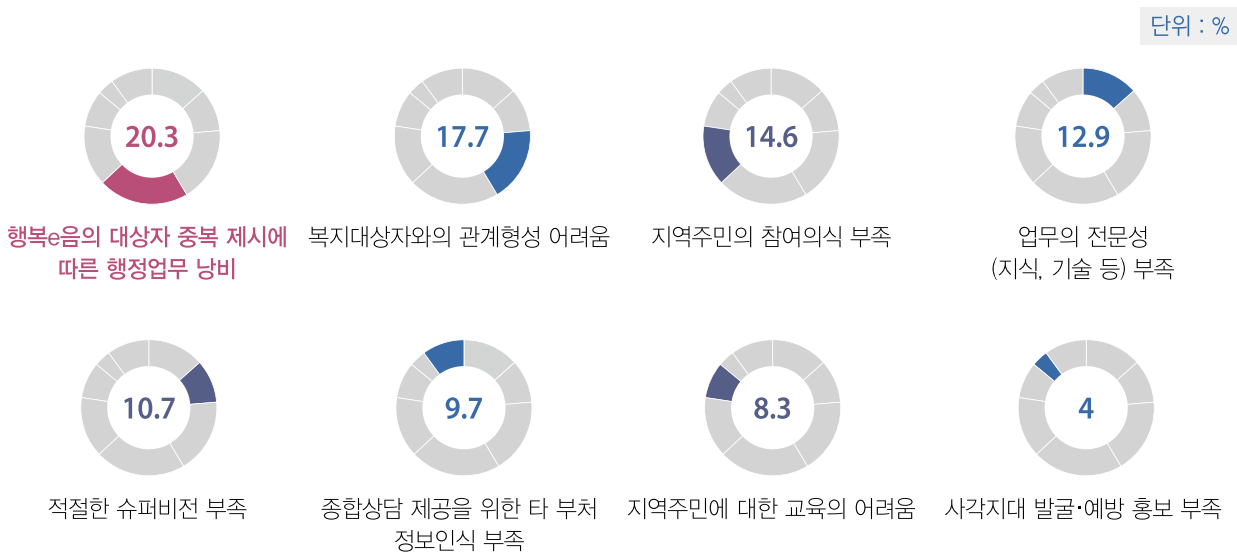
– 응답자는 여성,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평균 40.59세로 나타남. 근무지는 ‘동 지역’, 유형은 기본형(평균 2.64명), 직렬은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업무 경력은 평균 1년 1개월, 사회복지업무 경력은 평균 10년, 공무원업무 경력은 평균 12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② 사각지대 발굴·예방, 찾아가는 상담 업무

– 사각지대 발굴·예방, 찾아가는 상담의 업무추진 어려움으로는 ‘사각지대 발굴·예방 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행복e음의 대상자 중복 제시에 따른 행정 업무 낭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복지대상자와의 관계형성 어려움’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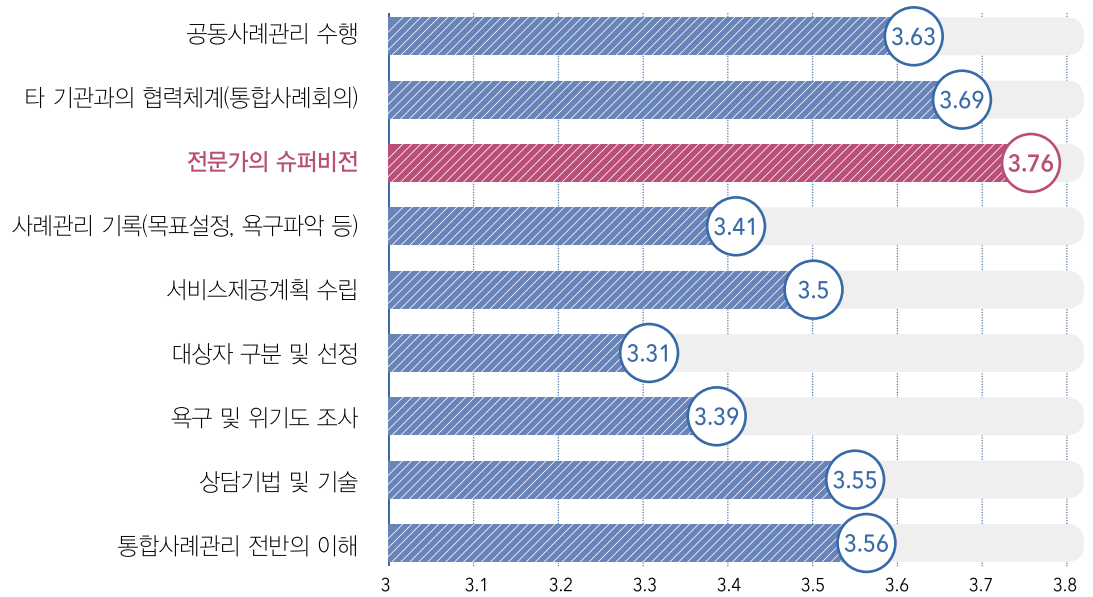
[그림 2] 사각지대 발굴·예방, 찾아가는 상담 업무수행의 어려움 정도



[그림 3] 사각지대 발굴·예방, 찾아가는 상담 업무수행의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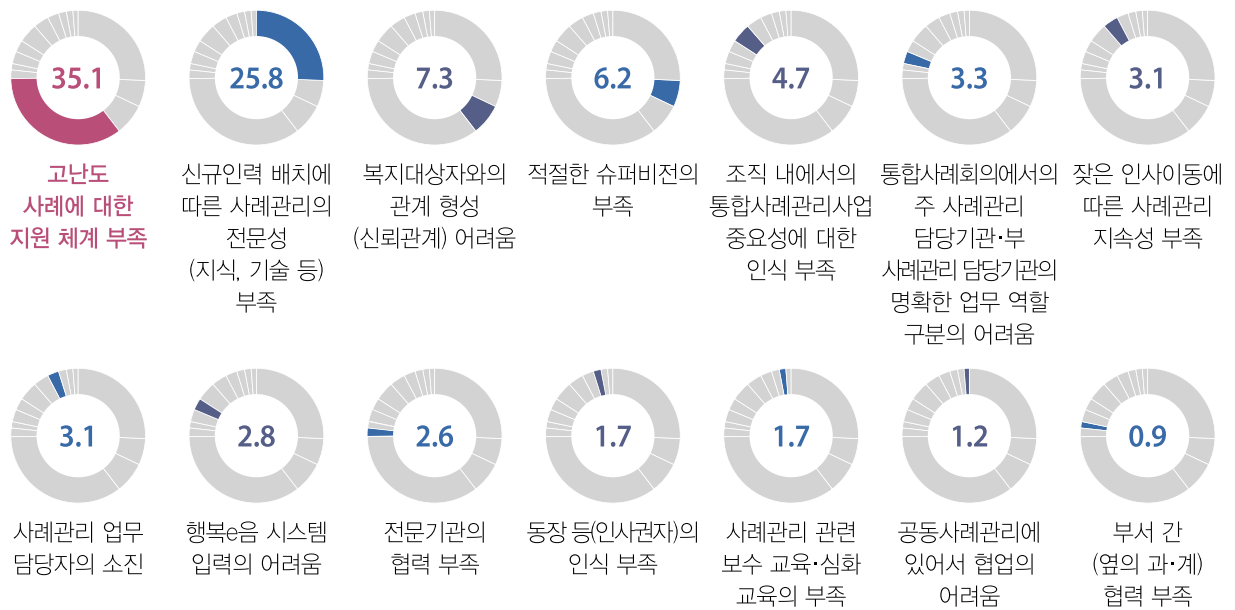
③ 통합사례관리 업무

-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슈퍼비전 부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통합사례회의)'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지원 체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신규인력 배치에 따른 사례관리의 전문성(지식, 기술)부족', '복지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신뢰관계) 어려움'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4]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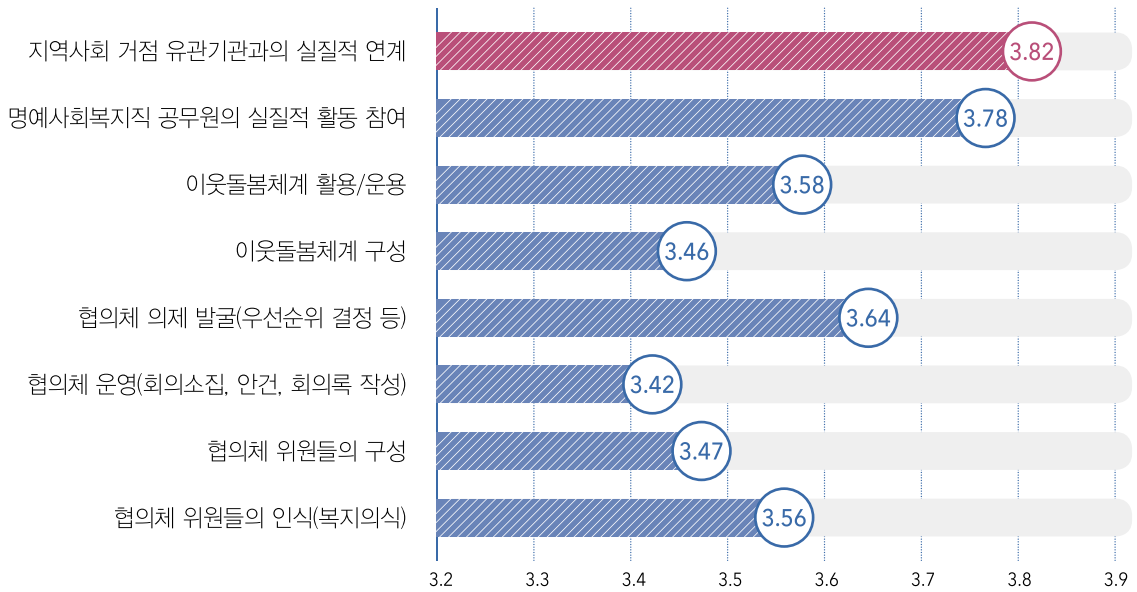
[그림 5]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

④ 자원 개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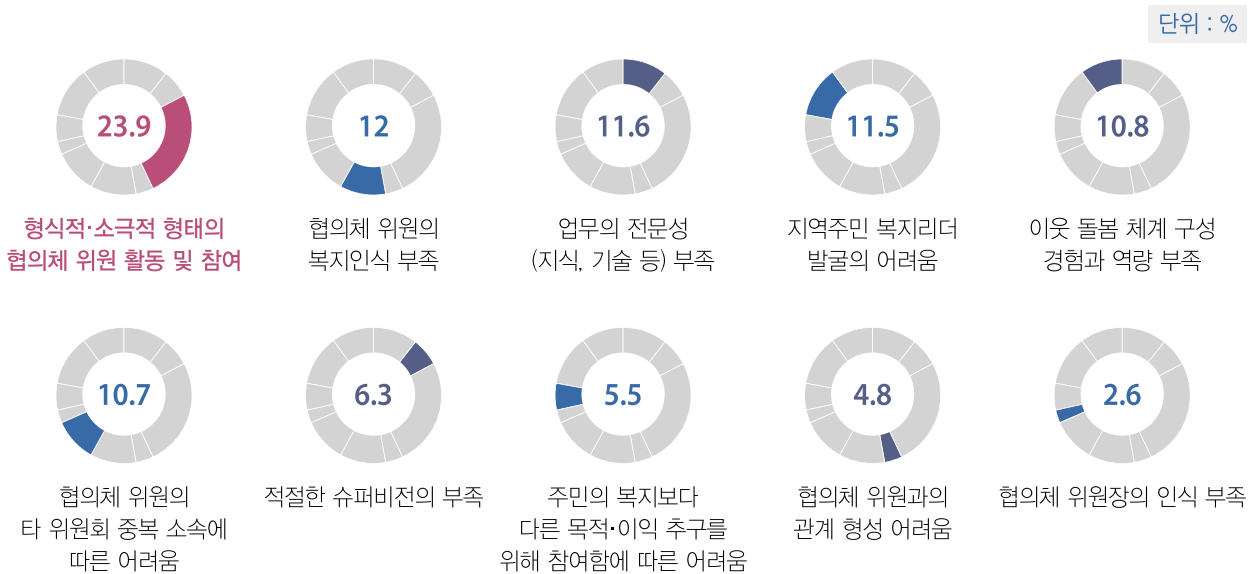
– 자원 개발 업무추진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자원 개발(발굴)’, ‘자원 활용(운용)’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인적 자원 발굴의 어려움’, ‘자원 관리의 전문성(지식, 기술 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⑤ 민관협력 업무

- 민관협력 업무추진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거점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연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실질적 활동 참여', '협의체 의제 발굴(우선순위 결정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형식적·소극적 형태의 협의체 위원 활동 및 참여', '협의체 위원의 복지인식 부족', '업무의 전문성(기술, 지식 등)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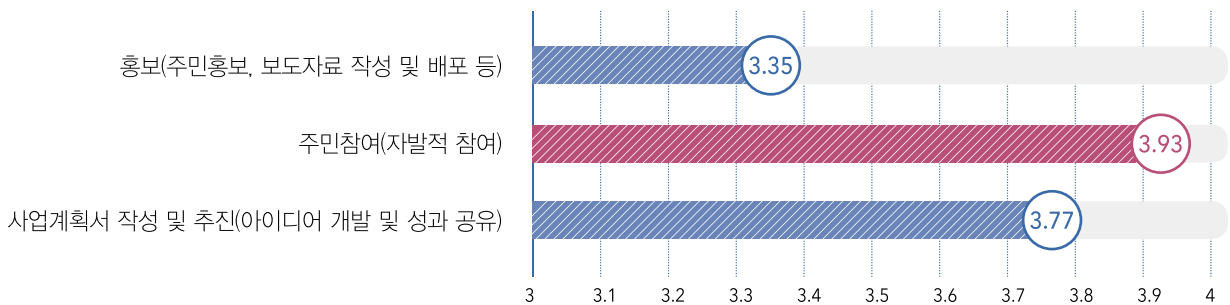
[그림 6] 민관협력 업무수행의 어려움 정도



[그림 7] 민관협력 업무수행의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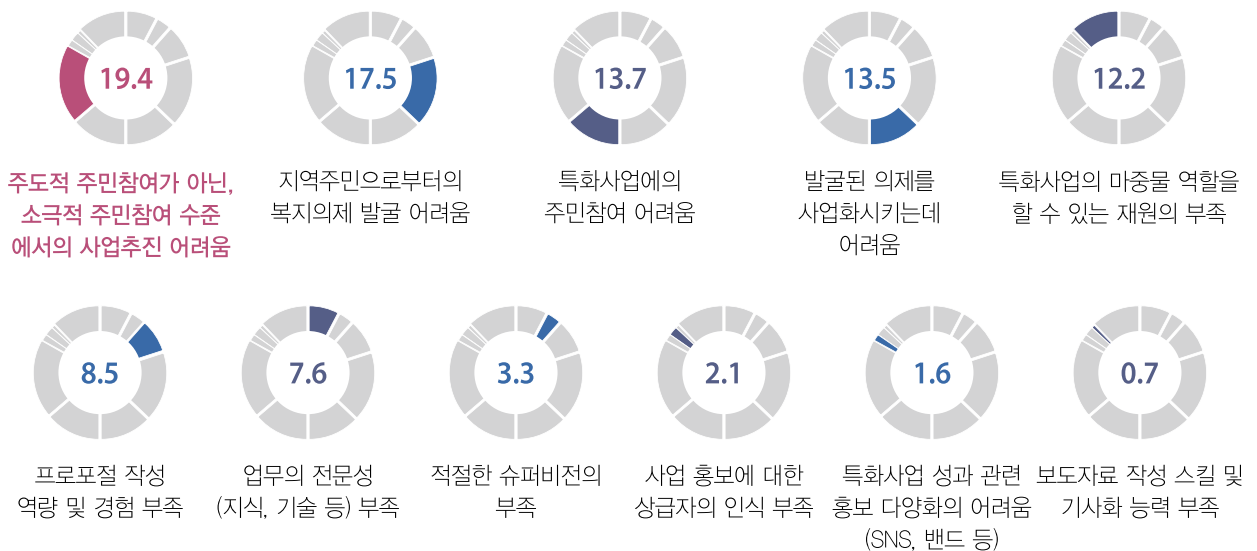
⑥ 특화사업 업무

- 특화사업 업무추진 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자발적 참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추진(아이디어 개발 및 성과 공유)’ 순으로 나타남.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도적 주민참여가 아닌, 소극적 주민참여 수준에서의 사업추진 어려움’, ‘지역주민으로부터의 복지이제 발굴 어려움’, ‘특화사업에의 주민참여 어려움’,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시키는데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특화사업 업무수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



[그림 9] 특화사업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

⑦ 업무 기반 관련 어려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업무추진 및 활성화의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지침의 모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새로운 업무지침의 시달과 잦은 변경’, ‘조직구성원의 맞춤형복지팀 업무 이해 부족에 따른 어려움’, ‘과도한 업무량’,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의 어려움’, ‘주민·지역 복지 리더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제언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대상자 특성별 체계적인 교육 강화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대상자별 체계적인 교육지원

– 경상북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정신장애·알코올 중독·우울증·자살 및 유가족 대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트라우마 있는 대상자 심리 이해, 민관협력 공동 사례관리,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례관리, 지역사회(주민)조직화, 마을 공동체 만들기, 마을(동)복지계획, 마을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성과 운영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계획 및 지원 필요

대상		교육내용	방식(기간)	
공무원	읍·면·동장	신규 동장 기본교육, 기존 동장 특화교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본이해, 리더십, 직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성 및 운영	2~3일	
	팀장	행정 팀장	기본 교육, 전문가 교육	1~3일
		복지 팀장	지역사회(주민)조직화, 마을 공동체 만들기, 마을(동)복지계획, 마을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방법, 주민 및 복지대상자와의 관계형성,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성 및 운영, 슈퍼비전, 소통	2~3일 퍼실리티 테이션 적용
	실무자	7-9급	통합사례관리(I~Ⅲ), 상담(Ⅱ), 기획역량 보건 및 타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 대상자 유형별(정신장애·알코올 중독·우울증·자살 및 유가족 대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트라우마 있는 대상자 심리 이해,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례관리, 민관협력 공동 사례관리 등)	전문가 집합교육 3~4일
			지역복지 : 지역사회(주민)조직화, 마을 공동체 만들기, 마을(동)복지계획, 마을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 안전,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방법, 주민 및 복지대상자와의 관계형성,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성 및 운영	3~4일 퍼실리티 테이션 적용
			퍼실리티테이션(기초, 중급)	4주 과정
	신규복지직 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본 이해, 초기면담 및 상담(I),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방법,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I), 기획역량	2~3일	
타 직렬 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본이해	홍보영상		
방문간호사, 보건직렬 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본 이해,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 유형별 대응, 민관협력	1~2일	
협의체 위원		협의체 위원 역할, 기능, 복지인식, 마을의제 발굴, 소통, 마을계획수립 방법, 복지역량 강화 등	복지 아카데미 (15주차 과정)	
복지리더, 지역주민		우리 지역과 이웃에 대한 관심, 공동체, 돌봄, 복지인식 및 복지역량 강화, 사회적 관계, 마을의제 발굴, 소통		

대상	교육내용	방식(기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퍼실리테이션(기초, 중급, 고급) 실제	4주 과정
	사례관리 대상자 유형별(정신장애·알코올 중독·우울증·자살 및 유가족 대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트라우마 있는 대상자 심리 이해,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례관리, 민관협력 공동 사례관리 등)	전문가 집합교육 3~4일
	지역복지 : 지역사회(주민) 조직화, 마을 공동체 만들기, 마을(동)복지계획, 마을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성 및 운영 공동사례관리(I~Ⅲ), 소통, 기획역량	3~4일 퍼실리테이션 적용
지역의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퍼실리테이션(기초, 중급, 고급) 실제	4주 과정
	지역복지 : 지역사회(주민)조직화, 마을 공동체 만들기, 마을(동)복지계획, 마을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구성 및 운영 공동사례관리(I~Ⅲ), 소통, 기획역량	3~4일 퍼실리테이션 적용
공공 + 민간 공동 워크숍 (관장-동장, 부장-계장, 실무자-담당자)	공동사례관리(I~Ⅲ)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자원 개발 및 관리, 민관협력, 소통 마을(동)복지계획, 마을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돌봄체계 구성 및 운영	2~3일

[표 1] 교육 내용(안)

② 민과 관의 소통을 높이고,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민·관 공동 워크숍' 지원

- 민과 관이 비슷한 직급별(관장-동장, 부장-계장, 실무자-담당자 등)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워크숍은 서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실질적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 전문적·상시적 슈퍼비전 줄 수 있는 컨설팅 인력풀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컨설팅 인력풀 양성을 통한 지역 밀착형 컨설팅

1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턴트 업무 관련 지침서를 개발(연구용역)

2안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도센터 1개소, 시·군센터 4개소 : 시범사업)가 추진되고 있음. 도 센터에서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시·군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계 및 현장의 컨설턴트 양성과정 신청'을 받아 수행

3안 경북행복재단에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개설(용역) 및 관리 운영

■ 마을(동)복지계획 수립과정 지원체계 구축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수동적 수혜자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 활동하는 것이 마을복지계획으로, 읍·면·동별 주민 참여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읍·면·동 사회복지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과 마을의제 발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별(기초, 심화단계) ‘퍼실리테이션’ 교육, ‘기획역량 강화’ 교육, 읍·면·동 주민과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복지리더 대상의 마을계획 관련 주민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 읍·면·동 단위 ‘마을(동)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 중에 복지리더(마을리더), 협의체 사무국장 등을 컨설턴트로 양성 필요

■ 경북 지역복지 역량 향상 위한 민간 복지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는 ‘관’에서만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함.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지원이 필요
- 대구시에서는 2018년 2억 7천만원, 2019년 3억 5천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7개소 각각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1명 및 복지자원 매니저 1명’을 채용 지원

■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활성화 지원 및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는 경상북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23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광역단위 네트워크임.
-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보건복지분야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공공·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계획수립, 서비스 공급, 자원연계 등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로 역할이 확대됨.
-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회원인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민간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함.

■ 경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경북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협의체 위원장의 서밋 활동 지원, ‘경북형 읍·면·동 특화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마중물로써의 지원이 필요함.
- 경상남도에서는 특화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개소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2015~2018년까지 3년 동안 1억원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안동행복드림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경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됨. 읍·면·동 특화사업 예산지원은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에 수탁사업으로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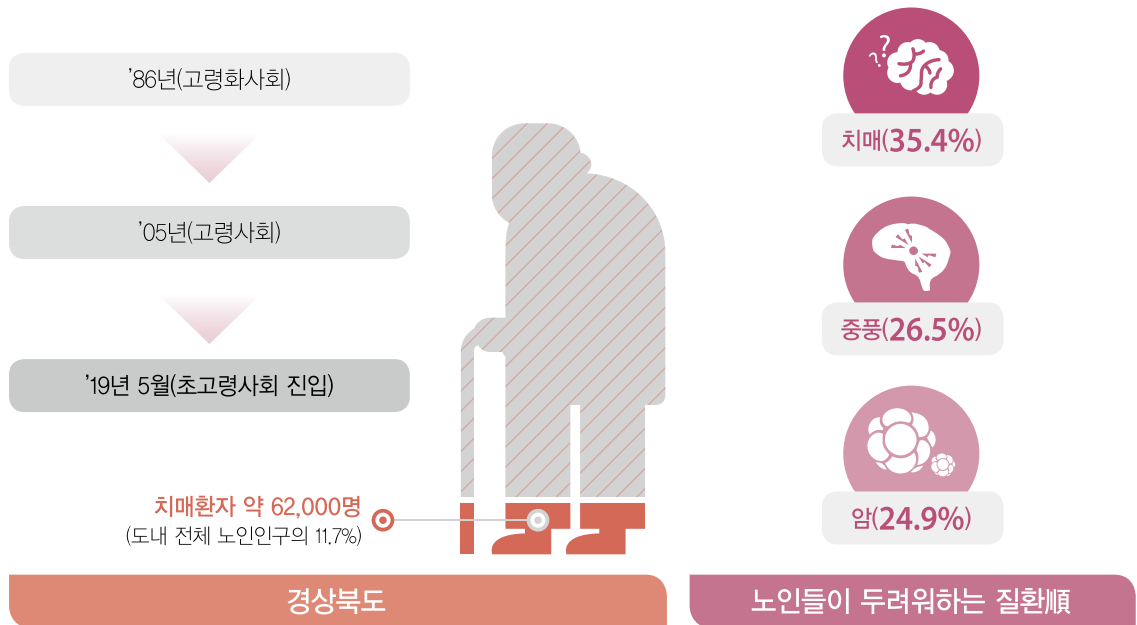
■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전환, 보건인력 충원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지자체장 관심 향상이 필요함

2] 주요정책 소개 : 경상북도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⁵⁾

1. 사업추진 배경

1) 사업 필요성

-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경로당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절실
-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로의 변화 필요
- 경로당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신체·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필요



2) 사업추진 방침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활용
→ 치매·중풍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선택적 운영
- 소외지역 경로당 선정으로 수혜 범위 확대
- 산간·오지 경로당 우선 선정,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 선정
- 지역 인프라 및 시기(농번기·농한기)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탄력적 운영
- 연속성 유지를 위해 경로당별 최소 주 1~2회, 3개월 이상 운영
- 행복도우미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임.

5) 경상북도.(2019).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 매뉴얼」

2. 사업추진체계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2019. 9월 ~ 12월)
- 사업주관 : 시장·군수(시·군에서 사업 수행기관 공모(지정 또는 직영 가능))
- 사업규모 : 500명(행복도우미, 파트타임 강사 등)
- 사업내용 : 행복도우미 활용 경로당 활성화 추진

2) 사업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경상북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주체별 주요 역할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9f9f9;">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경상북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운영지침 수립 • 사업총괄 및 조정 • 사업홍보, 지도점검 • 사업성과분석 및 평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9f9f9;">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경상북도 이웃사촌 복지센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문 및 컨설팅 • 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 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 행복도우미 역량강화 교육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9f9f9;">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시·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선정, 관리·감독 • 수행기관 행·재정적 지원 • 수요경로당 선정 지원 • 수행기관 성과평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9f9f9;">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5px;"> 사업수행 기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 행복도우미 선발, 교육 • 근태 및 사업 모니터링 등 관리 • 수당 지급, 근무상황 지도, 관리 </div>

-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와 협조 체계 유지 및 지원

4) 사업흐름도



사업흐름도

3. 사업운영

1) 사업 수행기관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행복도우미(강사) 수급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기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시·군 여건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 등
- 수행기관 운영 : 2년 이내(2020년까지)
 -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평가 후 연장 가능

2) 경로당 행복도우미



64세 이하인 자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등 여가 관련 자격증, 건강·의료관련 자격증 등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추가 가능

■ 주요 역할



01
유익정보제공자

- 행정 관련 정보 등 전달
-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교육**(안전교육, 노인 성교육 등)
- 경로당 시설물 관리 및 **회계, 위생 교육** 등



02
프로그램관리자

- 경로당 내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보급** 실시
- 욕구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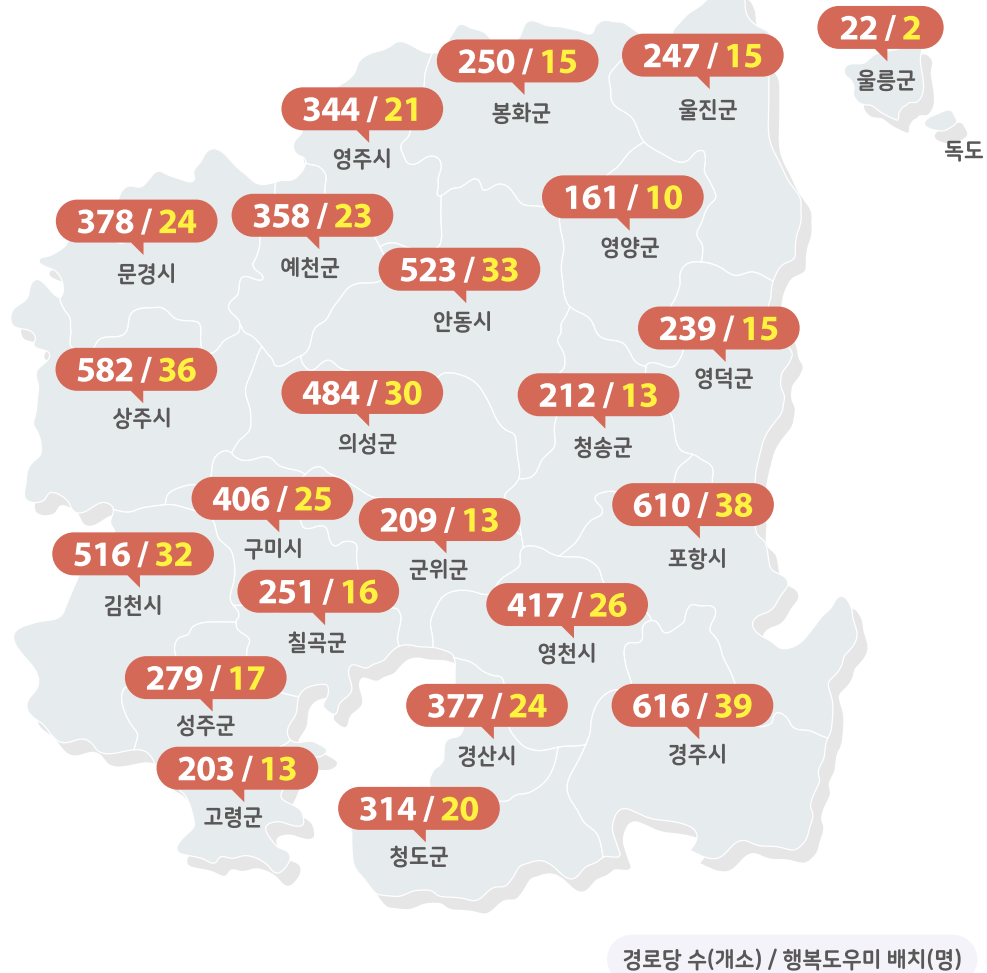
03
복지코디네이터

- 경로당 미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복지 서비스 연계** 등

■ 시·군별 경로당 행복도우미 배치 계획(2018. 12. 31 기준)

- 경상북도 전체 경로당 : 7,998개소
- 경로당 행복도우미 배치 : 500명*

* 시·군 경로당 수 / 16 = 500(1인 16개 경로당 담당)



■ 경로당 선정

주체	주요 내용
시·군	2019 사업 수행 전 경로당 수요조사 실시
사업 수행기관	매년 경로당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대상 경로당 선정

- 농촌 및 산간·오지 지역 등 비활성화 된 경로당 우선 선정
 -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10인 이하)도 어르신들이 희망할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토록 추진함(단, 최소 5인 이상 경로당).
 - 지역주민(부녀회, 청년회, 아동 등)도 프로그램 참여 가능

3)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하루(시뮬레이션)⁶⁾

■ [문경형] 경로당별 책임관리(행복도우미) 배치 프로그램

- ① 자격 : 노인관련 프로그램 강사(의료A, 건강B, 사회복지C, 여가D 등)
 - 프로그램 수행 경력자 우대(관련 자격증 2개 이상 및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② 배치기준 : 1인당 경로당 16개소 담당(전문프로그램 제공 4~6개 경로당 담당, 경로당별 주 1~2회)
 - 16개소 중 전문프로그램 제공 외 경로당은 유익정보 제공 등(전체 경로당 필수, 연 4회 이상)
 - 프로그램 없을 시 미이용자 상담 등 복지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예천형]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행복도우미) 배치 프로그램

- ① 자격 : 사회복지사 등 프로그램 기획 평가 경력자
- ② 배치기준 : 1인당 경로당 60개소 담당(전문프로그램 제공 30~40개소, 미제공 20~30개소)
 - 60개소 중 전문프로그램 제공 외 경로당은 유익정보 제공 등
(전 경로당 필수, 연 4회 이상, 주 10회 경로당 방문)
 - 전문프로그램 제공(30~40개소) : 파트타임 강사(유료) 및 재능기부자 활용

■ 시간별 근무형태 비교(예시)

시간	경로당별 책임관리(문경형)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예천형)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 체크, 일정 확인 - 수행기관 or 거점경로당 or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 체크, 일정 확인 - 수행기관 or 경로당
9: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경로당 1개소 방문(4~6개소 중 1) - 분야별 프로그램(건강체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인(강사 확인) •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건의사항 등)
10: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관리서비스 제공(16개소 중 1) - 회계, 위생, 안전, 노인복지시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인(강사 확인) •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건의사항 등)
13: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경로당 미이용자 상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인(강사 확인) •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건의사항 등) • 경로당 관리서비스 제공
14: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경로당 2개소 방문 - 분야별 프로그램(노래교실, 한궁 등) • 익일 일정 확인 및 활동일지 정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인(강사 확인) •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건의사항 등) • 경로당 관리서비스 제공
15:00~18:00		

6) 시간계획은 시·군별 지리적 여건,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편집위원 류승완, 김동화, 정상기.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